

세계 도서관들의 역동성을 느끼며

김 상 욱*

Berlin IFLA 총회를 다녀온 지도 벌써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돌아보면 사서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여러 선배님 및 선생님들과 함께 낯선 도시를 거닐고,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쫓기듯 보낸 것이 얼마 전의 일 같은데, 그 이후의 시간들 역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는지 꽤 먼 기억속의 일로 느껴진다. Berlin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기 위해 이렇게 글로나마 정리해보고자 한다.

IFLA총회는 40여 개의 분과별 워크숍 및 업체전시회, 축하리셉션 및 문화공연 등의 일정을 통해 전 세계 도서관학의 표준화와 관련 기술의 향상, 세계 각국 사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나가는 자리로 이번 대회가 열린 베를린의 날씨는 출국전 여행사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15℃~20℃)과 달리 울어름 유럽에 찾아온 폭염(暴炎)탓에 우리네 한여름 날씨처럼 온도가 매우 높았으며 햇빛 또한 강렬해 낮 동안의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비록 언어소통의 문제와 날씨, 전체 일정 중 자신이 원하는 일정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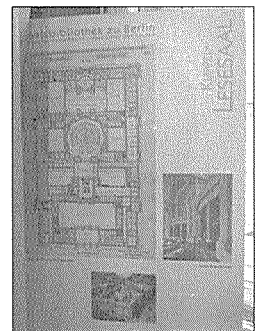
등록데스크 전경

대회가 열린 ICC (International Congress Center)는 서베를린(통독전 서독)지역에 1970년대 말에 건축한 건물로, 간결하면서도 강한 독일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첫날의 등록작업 및 IFLA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포스터세션, 업체 전시회, 개·폐회식 등의 각종 공식행사가 이루어졌다.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5개 IFLA 공식언어로만 동시통역이 제공된 까닭에 각종 분과별 워크숍대신 도서관 Tour 및 포스터세션, 업체전시회 등에 비중을 두어 참가하였다.

그 중 관심을 끈 것은 Berlin State Library House에 대한 도서관 Tour로, Berlin State Library는 긴 역사를 가진 도서관답게 1956년 이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동베를린의 House I과 그 이후부터 최신자료까지를 소장하고 있는 서베를린의 House II 두개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각은 통독 전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국립 도서관으로 운영되었다.

House I 과 II 두편의 Tour시 설명을 House II 동아시아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사서께서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가능하였으며, IFLA 한국참가자들 대다수가 이 Tour에 참가하였다. House II는 1978년도에 지은 건물임에도 배를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과 이용자를 배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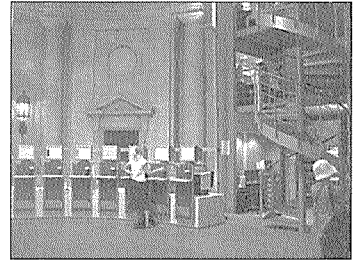
House I 조감도

* 경희대 수원캠퍼스 사서, ksw0321@khu.ac.kr

넓직한 공간배치, 연구중 사색을 위한 사색의 공간 마련 등 건축에 쏟은 정성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부의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독어자료는 수서파트에서 따로 구매하고, 원어자료 대상의 수서 및 정리 등의 제업무와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체 업무중 참고봉사의 비율이 70% 정도로 매우 높은 참고봉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Berlin State Library Tour 외에 Humboldt 대학도서관 Tour에도 참석하였다. Humboldt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베를린 곳곳에 캠퍼스가 산재해 있고, 단과대와 함께 주제별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Tour는 Berlin State Library House I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사 및 법학자료실과 Berlin State Library House I 건물의 뒤쪽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Central Library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Tour에 많은 수의 한국참가자들이 참석했음에도 영어로 진행된 까닭에 전반적으로 다소 내용이해에 어려움이 따랐다.



Central Library의 Main Hall

셋째날 관람했던 포스터 세션에서는 약 50여 개의 도서관 및 관련단체에서 참가하여 자관을 알리는 홍보용 포스터와 안내물을 배포하였으며, 안내원을 통해 포스터의 내용과 그 의미 또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포스터 Session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대도시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 미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지역의 각종 도서관에서 펼쳐고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보고 들으며, 세계 각국 곳곳에서 작게나마 살아 숨쉬고 있는 도서관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업체전시회에는 이보다 많은 200여개 도서관 정보화 관련업체와 사우디 국립도서관 등의 나라별 대표기관 및 도서관이 참가하여 부스를 차리고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우리나라의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참가하여 한국의 기술 및 각종 표준관련 정보의 접근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었다. 대다수의 DB 및 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무인 자동대출반납기, RFID 카드칩 등 이미 국내에서 소개되었던 것들을 전시해 놓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도서관 관련 가구업체들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의 서가 및 자료검색대 등 이용자 입장에서의 열람환경을 개선해주는 가구들과 가운데 중앙에 하나의 바퀴만 달린 북트럭 등 사서의 업무편의성을 개선한 소품들을 전시해 놓아 특히 눈길을 끌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IFLA총회 참석을 정리해보면 비록 길지 않은 일정에 의사소통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독일의 여러 도서관을 둘러보고,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살아 숨쉬는 도서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급격한 시대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보가 언제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그 한가운데 전문가로 대접받는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순간순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가 단위에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들은 이를 가치있게 인식하고 활용하며, 사서는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련의 작업을 소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어쩌면 일순간 지나치는 나그네의 짧은 감상이라 해도 이러한 모습이 참된 정보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첨단 기술속에 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문화가 실종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